12/2/18

설교 제목: 하만의 흉계와 모르드개의 신앙의 절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3 장 1-15 절

(에 3: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 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절관주]창 41:42

(에 3: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에 3: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 3: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에 3: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절관주] 에 3:13

(에 3: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에 3: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절관주] 스 4:13

(에 3:9)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에 3: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에 3: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에 3: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절관주] 왕상 21:8, 단 6:17

(에 3: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 3: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절관주] 에 8:13

(에 3: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비로 간택이 되어 왕후의 자리에 오른지 3-4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할 것을 명했습니다.
1 장에서 보면 신하 중 므무간이 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는데 3-4 년이 지난 지금은 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바사 아하수에로 왕실 내부에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 3: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 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어떻게 세력 다툼에서 이기고 출세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 하만은 아멜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멜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긴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영적인 복 보다는 육적인 욕망을 택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430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을때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주지 않고 시비를 걸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출 17: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은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예배 행위 즉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멜렉 족속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통치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에 3: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에 3: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개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힌 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을 유일 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모르드개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린 것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신앙 때문임을 밝힌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당시 세도가 당당했던 하만에게 드러내 놓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반면 왕의 신하들은 소인배들이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에게 아부나하며 의리를 져버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 3: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에 3: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의 신하들로부터 유다인 모르드개의 행동에 대해 말을 들은 하만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 화가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온 유다인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바사에 살고 있는 전 유대인을 죽이는 것으로 보응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에 3: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지 5 년째 되는 해인 BC 474 년경 일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절시킬 거사 날짜를 부르 즉 제비를 뽑아 그로부터 열 한 달 후인 아달월로 결정하였습니다.

열 한 달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인들은 대책 마련을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에 3: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에 3:9)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왕에게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기를 구하였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은 일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그가 멸하고자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딱 집어 밝히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두루뭉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만의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전왕인 고레스 왕와 다리오 왕이 유다 민족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머리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재빨리 왕이 우려하는 바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챙깁니다.

당시 바사는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고가 부실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을 멸하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는데 비용이 들것이고 유다 민족으로부터 징수했던 세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왕에게 은 일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선수를 칩니다.

(에 3: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에 3: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드디어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 줍니다.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준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 전권을 하만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반지는 우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임금님 옥쇄와 같은 것입니다.

공식 문서를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번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하만의 말만 듣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참으로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하여 왕은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킬 경우 은과 그 백성들을 하만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만은 결국 1 월 13 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꾸미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냅니다.

(에 3: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에 3: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 3: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공교롭게도 1 월 13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하루 전입니다.

하필 이날 하만은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한 조서를 작성하여 역졸을 통해 지방까지 보냅니다.

당시 바사 우편 제도는 고레스 왕이 확립해 놓았는데 보발꾼들을 8Km 마다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공문서가 인계되면 말을 타고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 월 13 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든 유다인을 죽여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로 인해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을 당할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좌절시키게 된 것입니다.

(에 3: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 성은 어지러웠습니다.
한편 이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왕과 하만은 주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보고 흥겨워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모르드개가 직면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눈 질끈 감고 하만에게 꿇어 절 한 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는데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꽉 막히면 되는 일이 없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겨우 절 하나 때문에 온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깐 절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유다 민족이 멸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하만을 향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라고 설명을 하여도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시절 신사 참배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져버렸던 것입니다.

생명과 신앙,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